



'2019 자전거 이용 활성화 Green 자전거 축제'가 3일 광주시 서구 극락교 일대 영산강 자전거길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가한 500여명의 라이더들이 영산강변을 따라 달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가을 바람 따라 자전거 물결... 경쟁 아닌 함께

동호인·가족·친구 등 500여명 참가
45km '사랑코스' 25km '행복코스' 질주

'가을, 두바퀴의 자유가 영산강변에서 펼쳐졌다.'

3일 '2019 자전거 이용 활성화 Green 자전거 축제'가 광주시 서구 벽진동 영산강자전거길안내센터에서 열렸다.

광주일보와 자전거사랑국연합회광주본부가 주최하고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광주본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광주와 전남지역 자전거 동호인, 가족, 친구, 연인 등 500여명이 참가해 남도의 짙은 영산강변의 흐드러진 억새와 높고 푸른 하늘, 황금들판을 감상했다.

Green 자전거 축제는 지역민의 건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저탄소 녹색 환경조성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사이클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전거용 슈트를 갖춰 입은 동호인부터 편한 트레이닝복에 헬멧만 착용한 가족 참가자, 외발 자전거를 타고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도 눈에 띄었다.

비경쟁 부문으로 치러진 이날 행사는 광주시 서구 영산강자전거안내센터(극락교)를 출발해 서창교-승천보-흥어1번지-영산대교를 영산강변을 따라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45km 거리의 '사랑코스'와 영산강자전거안내센터에서 출발, 승천보안내센터에서 반환해 돌아오는 25km의 '행복코스'로 열렸다.

자전거 축제 출발에 앞서 참가자들은 광주시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변축 자전거 거점터미널'에서 간단한 자전거 정비를 받기도 했다.

먼저 출발한 사랑코스(45km)는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선두에 서서 안전 사고에 대비했다. 참가자들은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인솔아래 강변으로 뻗어 나간 길을 달리며 영산강의 가을풍경을 만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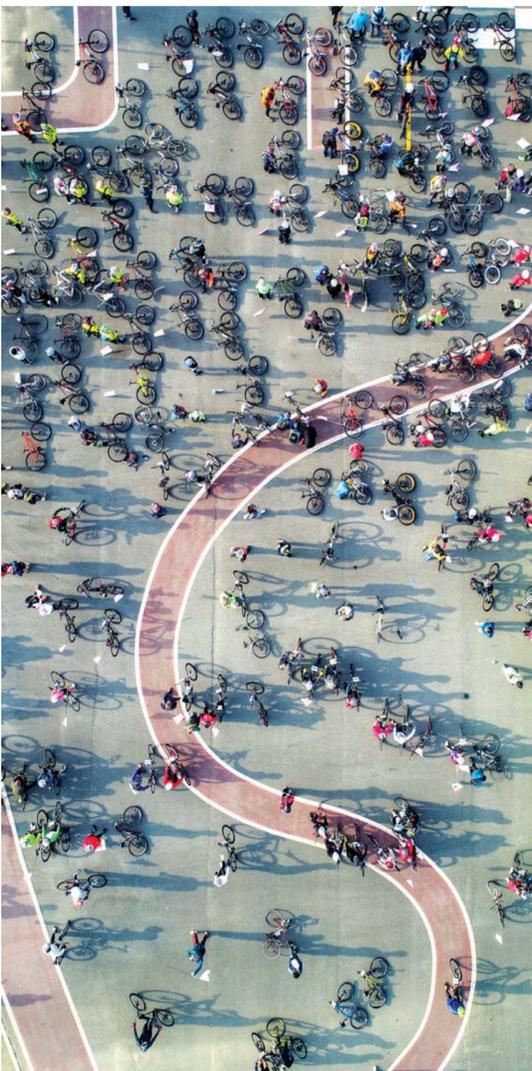
축제에 앞서 다채로운 행사도 펼쳐졌다. MC 신조환의 진행으로 트로트 가수 문규

리와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K.J.N 파워댄스 팀의 공연도 펼쳐졌다.

문세훈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광주본부장은 "Green 자전거축제가 대회가 아닌 페레이드인 만큼 라이더들과 영산강을 둘러보며 가을 만끽했으면 한다"며 "영산강변 자전거길은 좁아 축제기간중 다른 라이더들과 얽힐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Green 자전거 축제'는 자전거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경쟁'보다는 '화합과 안전'의 대회로 평가받는 대회다. 개인 안전장구와 자전거만 있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대표 자전거축제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2019 그린자전거 축제 행사에 참가한 라이더들이 광장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준비운동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가족의 따뜻함 안고 두 아들과 씩씩~"

두 아들과 참가 김 빈씨

"아이들에게도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Green 자전거 축제는 지역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가족들이 함께 달리는 무대로 사랑을 받고 있다.

11번째 대회가 열린 올해에도 많은 가족이 가을을 달리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첨단에서 온 김빈씨도 '가족의 따뜻함을 안고 내살, 두 살배기 두 아들과 함께 달렸다.'

큰 아들 휘찬이를 뒷자리에 태우고 영산강자전거안내센터를 출발한 그는 결승선을 돌아올 때는 둘째 아들 휘호와도 함께 했다.

김씨는 "둘째는 아직 어려서 25km를 달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반환지점인 승천보에서 합류했다. 아내가 아이와 기다리고 있었다"며 "큰 아이가 자전거를 타는 것을 좋아한다. 오늘도 자전거 타러 가지면서 좋아했다"고 웃었다.

밝은 표정으로 대회를 즐긴 세 부자. '자전

거 탄 풍경'을 간직하고 있는 그에게는 또 다른 추억이 남은 소중한 시간이 됐다.

김씨는 "어렸을 때 외삼촌이 자전거를 태워주시곤 했다. 삼촌과 시골길을 달리던 순간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아이들에게도 자전거의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고 대회 참가 이유를 밝혔다.

또 "차를 이용해 달릴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자전거를 타면서 달린다 보면 아이들이 풍경도 보고 자연을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다"며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 아이들과 자전거를 타고 있다"고 말했다.

성공적으로 Green 자전거 축제 데뷔전을 치른 그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 아이들과 나란히 결승선을 통과하는 게 그가 그리는 또 다른 꿈이다.

김씨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함께 페달을 밟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대회에 참가해서 나중에는 함께 자전거를 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



"외발자전거로 새로운 추억 만들었어요"

사랑코스 도전 기민서씨

"외발 자전거로 영산강변을 달리면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3일 광주시 서구 영산강자전거안내센터에서 진행된 2019 Green 자전거 축제에서 기민서(43·장성군)씨가 외발 자전거로 사랑코스(45km)에 도전해 눈길을 끌었다.

기씨는 "영산강변에 있던 자전거 축제 현수막을 보고 축제에 참가했다"며 "남도의 짙은 영산강변을 달리 수 있어 기분이 색다르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기씨는 매주 주말이 영산강 주변 라이딩을 즐기고 있다. 그는 "지난해 우연히 외발 자전거의 묘한 매력에 빠져 지금은 외발 자전거만 타고 있다"며 "최근에는 첨단대교부터 영산강의 74km 코스를 완주했다"고 말했다.

기씨는 "일반 자전거 보다 외발 자전거는 4배 가량 더 힘이 드는 것 같다"며 "외발 자전거

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면 보통 10여시간 정도 타보면 적응을 한다. 일반 자전거에 비해 속도도 느리고 옆이 아닌 앞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Green 자전거 축제에 출전하려 했지만 익숙치 않은 탓에 주변 라이더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참가신청을 포기했다.

기씨는 "외발 자전거를 타면 균형을 잡는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평소 안 쓰는 근육을 사용하게 되어 두뇌발달에도 효과적"이라며 "흐트러지지 않고 척추를 곧게 편 자세로 자전거를 타야 하므로 척추교정과 척추측만증 예방에도 좋다"고 설명했다.

기씨는 "올해 Green 자전거 축제에 외발 자전거 참가자는 단 2명 뿐이다"며 "보기와 달리 외발 자전거는 전혀 위험하지 않다.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이 있는 만큼 외발 자전거 주변이 확대돼 내년에는 많은 외발 자전거 참가자들이 축제를 즐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